

## 사도 바울에게서 배웁시다.

사도행전 20:17-24 |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정도 사역하였습니다. 이후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성도들 몇 명을 청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다섯 가지로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1. 겸손하였습니다.

행 20: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겸손함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한날을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행 20: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다는 것은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울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 3. 인내하였습니다.

행 20: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도 있어야 하지만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마지막이 잘 되고 복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해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 4.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행 20: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참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지 않고 어디서나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 소식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5.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조롱하든 비방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며 그의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